

아니쉬 카푸어와 알렉스 프라거의 신세계

September 28, 2016 | KANG HYE YOUNG, LEE DA YOUNG

page 1 of 2

지적 시선을 끌어 올릴 두 가지 전시.

매끈한 불안정성



'Non-Object Twist' 작품 앞에 선 아니쉬 카푸어.

움푹 파인 눈은 늘 지금과 반대되는, 그 뒤의 세상을 비춘다. 비틀어진, 15도쯤 기운 비정형의 기둥들은 지진에 흔들리는 건물처럼 휘청거린다. 매끈한 스테인리스 강철을 타고 흐르는 세상의 풍경은 울렁이고 뒤집히고, 분할, 재결합되기를 반복한다. 시·공감각 이면의 영적이고 본질적 접근을 탐구해온 아니쉬 카푸어의 개인전 <군집된 구름들 Gathering Clouds>이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신작 '트위스트' 시리즈는 물체의 내적, 기하학적 형식과 반사되는 표면을 결합해 해석의 모호함뿐 아니라 작품 자체가 소멸하는 것 같은 모호한 상태를 드러낸다. 2.5m 높이의 대형 작품 세점과 60cm에 달하는 열두 점의 트위스트 작품 속으로 들어서보자. 작가가 설계한 고대 건축 기호 사이를 거닐다 블랙홀 같은 구름 속으로 빠져도 좋겠다. 8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Gathering Clouds I, II, III, IV, 2014
Fiberglass and paint, 188 x 188 x 39 cm (each)
Image © Anish Kapoor,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Sky Mirror, 2006 Stainless steel,
Diameter 10m, Kensington Gardens, 2010-11 Photo: Tim
MitchellImage © Anish Kapoor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